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성찬주일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성찬식

신앙고백 / 고전 11:23-36
오 나의 주님 친히 보오니(찬228)

다같이

특송 (김은희,이세희)

결단의 기도

찬양*

이 몸에 무슨 소망이나

다같이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히브리서 11:13-16

다같이

말씀선포

“우리가 품어야 할 진정한 소망”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490)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 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3. 부활절 헌금으로 구입한 의료용 마스크를 뉴욕장로교병원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4.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 있습니다.
5. 5/6(수) 저녁 8시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로, 새벽기도회는 Zoom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애찬식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다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찬부에서 준비한 빵과 잔으로 다함께 나누며 성찬예식을 하였습니다. 성찬식을 시작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받은 자만 참여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직 세례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 고백을 하지 못한 아이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초청합니다. 이른바 애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기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여느 유월절과 달리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빵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신약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른바 애찬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게 함으로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성찬식이 예전으로 자리잡으며 공동식은 애찬식이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의 원형은 애찬식이라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찬식과 같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11시 영상예배에 같이 하며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른도, 아이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그것을 위해 미리 빵과 포도음료를 준비하시고, 가정에서 성찬위원 한 명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과 같이 하며 빵과 잔을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성찬을 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하며,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902,442